

폴란드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확대 전망

1. 이동통신 시장 개요

□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피티씨의 3대 이동통신기업 간 경쟁체제 형성

○ 폴란드의 이동통신 시장은 3대 이동통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 9월말 가입자 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피티케이 센터텔(PTK Centertel) 30.9%, 폴콤텔(Polkomtel) 29.8%, 피티씨(PTC) 29.1%로 집계되었음.

- 3대 이동통신기업 외에도 피4(P4)(시장점유율 9.5%), 센터넷(CenterNet)(시장점유율 0.4%) 및 에어로2(Aero2)(시장점유율 0.3%) 등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 폴란드의 3대 이동통신기업 현황

구분	사업현황	영업 현황	주요 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설립연도: 1994년 -시장점유율: 30.9% -가입자수: 14.1백만 명 (선불제: 7.3백만 명, 후불제: 6.8백만 명) -고용자수: 3,659명	-매출액: 26억 달러 -가입자당 평균수익 ¹⁾ : (선불제)6달러, (후불제)23달러	-TPSA(Telekomunikacja Polska) 100%
폴콤텔 ²⁾	-설립연도: 1996년 -시장점유율: 29.8% -가입자수: 13.7백만 명 (선불제: 6.2백만 명, 후불제: 7.5백만 명) -고용자수: 3,100명	-매출액: 27억 달러	-Vodafone 24.4%, PKN Orlen 24.4%, KGHM 24.4% 등
피티씨	-설립연도: 1996년 -시장점유율: 29.1% -가입자수: 13.3백만 명 (선불제: 6.5백만 명, 후불제: 6.8백만 명) -고용자수: 5,500명	-매출액: 23억 달러 -가입자당 평균수익 ¹⁾ : (선불제)5달러, (후불제)22달러	-T-Mobile Deutschland 70.5%, MediaOne International 22.5% 등

주: 1) 가입자수 및 가입자당 평균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의 산정 기준일은 2010년 9월 말이며, 매출액은 2009년 연중 기준으로 집계됨.

2) 폴콤텔의 가입자당 평균수익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BMI, Poland Telecommunications Report Q1 2011.

□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증가율 둔화

- 폴란드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 말 기준 45%에서 2007년에 100%를 넘어섰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120%를 기록함.
 - 이는 2010년 말 기준 유선통신 보급률 26.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10년 말 기준 총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4,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로 인해 향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은 전반적으로 폴란드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나, 최근 들어 주요 통신기업들이 비활성 선불제 서비스¹⁾ 가입자를 가입자 집계에서 제외한 것도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3개 이상의 SIM²⁾카드를 보유하던 고객들이 통신비용 절약을 위해 SIM카드의 수를 줄인 것도 가입자 증가율 둔화 요인으로 작용함.

<표 2> 이동통신 가입 현황 및 전망

구 분	2008	2009	2010 ^e	2011 ^f	2012 ^f	2013 ^f
가입자수 (천명)	44,213	44,961	46,093	46,332	46,101	45,777
가입자수 증가율 (%) , 연 간)	6.6	1.7	2.5	0.5	-0.4	-0.7
보급률 (%) (가입자수/100명)	116.0	117.8	120.7	121.5	121.0	120.3

자료: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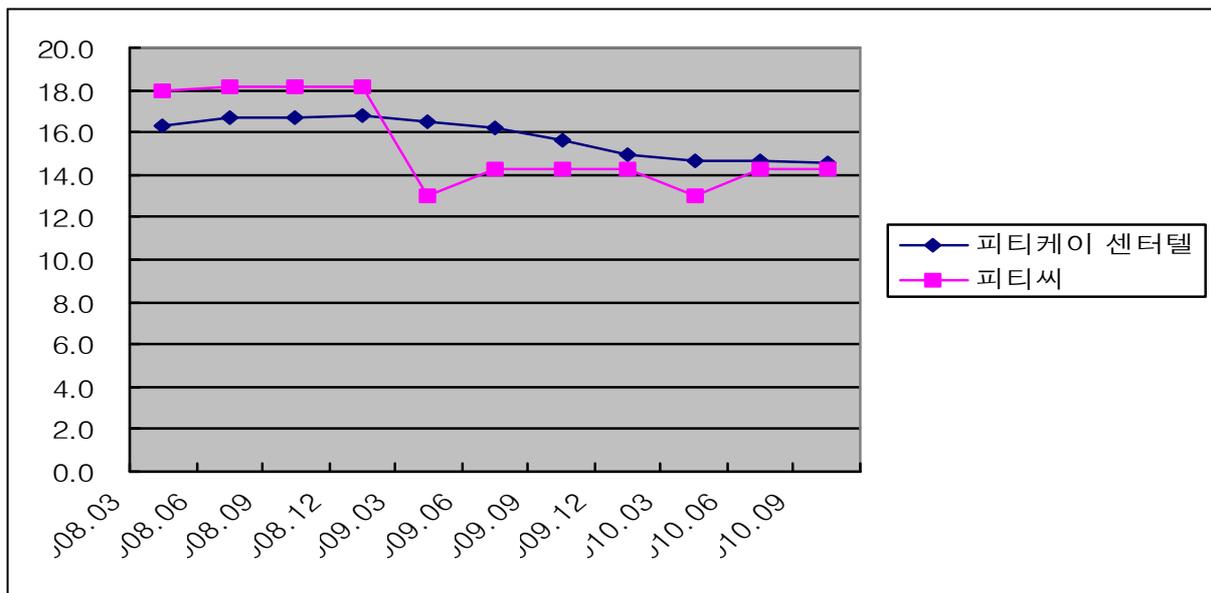
1) 폴란드의 이동통신 요금제는 선불제와 후불제로 분류되며, 선불제의 경우 휴대폰 사용요금을 통제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선불제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음.

2) Subscribe Identity Module(SIM): 이동 전화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모듈로 가입자의 인증, 과금, 보안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저장한 칩을 의미함.

□ 주요 이동통신기업의 고부가가치 고객확보 경쟁심화

-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신규 고객 확보 경쟁이 한계에 이르자 주요 이동통신기업들은 가입자당 평균수익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부가서비스 및 콘텐츠 사용고객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음.
- 2009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통신시장의 신규 고객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기업들은 요금인하 조치를 취함. 그 결과, 피티케이이 센터텔 및 피티씨의 2009년도 가입자당 평균수익이 각각 전년 대비 4.8%, 23% 하락한 15.8달러, 14.0달러를 기록하였음.
- 3대 이동통신 기업들은 기존 고객들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및 콘텐츠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3G 서비스 등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그림 1> 폴란드의 주요 이동통신기업의 가입자당 평균수익 변동 추이



자료: <표 1>과 같음.

2. 3G 서비스 시장 현황

□ 3대 이동통신기업 및 피4의 주도로 3G 부문 성장지속

- 폴란드 정부가 2000년 12월에 3대 주요 이동통신기업에게 3G 서비스 라이선스를 부여한 이후 2005년 5월에는 피4가 추가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아 3G 이동통신 부문은 4개 이동통신기업의 주도로 성장을 지속함.
- 3G 부문 주요 이동통신기업들은 라이선스 취득 이후 WCDMA³⁾, HSDPA⁴⁾ 및 HSPA+⁵⁾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등 3G 부문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서비스지역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특히, 피티케이 센터텔은 2010년 10월 말 기준 HSDPA 네트워크 서비스지역을 폴란드 인구의 56%에 달하는 지역에까지 확대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임.

<표 3> 이동통신 기업별 3G 서비스 현황

통신사명	라이선스 취득비용	3G 서비스 내용
피티케이 센터텔	8억 3,200만 달러	-2005년 7월 3G WCDM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06년 10월 3G HSD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10년 10월 기준 총 인구의 56% 해당지역에 동 서비스 제공 -2010년 10월 HS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10년 말 기준 총 인구의 11% 해당지역에 동 서비스 제공
피티씨	8억 3,200만 달러	-2004년 8월 3G WCDM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06년 10월 3G HSD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08년 3월 기준 폴란드의 160개 지역(폴란드 총 인구의 36%)에 동 서비스 제공 -2009년 9월 3G HS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플콤텔	8억 3,200만 달러	-2004년 9월 3G WCDM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노키아 및 에릭슨이 네트워크 장비 지원) -2006년 11월 3G HSD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07년 말 기준 폴란드 총 인구의 20% 해당지역에 HSDPA 서비스 제공
피4	1억 700만 달러	-2005년 5월 3G 라이선스 취득 -2007년 3월 3G WCDMA 및 HSDPA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2010년 8월 기준 폴란드의 39개 지역에 HSDPA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자료: IHS Global Insight.

3)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확산대역 기술을 이용한 미국 표준 3G 이동통신 기술로 기존 2G 이동통신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름(2Mbps까지 가능).

4)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3.5G 이동통신 기술로 구분되기도 하며, 데이터 전송 최대 속도는 14.4Mbps로 WCDMA보다 7배나 빠름.

5) HSPA+(Evolved High-Speed Packet Access): 3.5G 이동통신 기술로 구분되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21Mbps까지 가능함.

□ 부가서비스 사업의 확대가 3G 부문 발전 견인

-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후 3대 이동통신기업의 영업 전략이 신규가입자 확보에서 기존 가입자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용 증대로 변경됨에 따라 3G 부문의 발전이 촉진됨.
- 통신기업들은 가입자들의 음성통신 사용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말 기준 3대 이동통신기업의 총수익 대비 부가서비스 수익 비중이 약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말 기준 폴란드의 3G 서비스 가입자는 1,242만 명이며, 이동통신기업의 3G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26.9%로 분석됨.
- 폴란드의 3G 서비스 가입자는 2013년까지 약 2,040만 명으로 증가해 그 비중이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 중 4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⁶⁾

<표 4> 3G 서비스 가입 현황 및 전망

구 분	2008	2009	2010 ^e	2011 ^f	2012 ^f	2013 ^f
가입자수 (천명)	6,009	9,224	12,420	15,504	18,114	20,404
가입자 비중 ^{주)} (%)	13.6	20.5	26.9	33.5	39.3	44.6

주: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대비 3G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의미함.

자료: <표 1>과 같음.

6) 폴란드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2011년을 고점으로 총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G 가입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3G 가입자 증가는 기존의 2G 가입자가 3G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효과가 미미한 반면, SIM 카드 감축 및 비활성 선불제 가입자의 가입자 계산 제외 등의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감소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3. 전망

□ 3G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폴란드의 이동통신 시장은 3G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 모바일 인터넷 구현 등으로 변화되고 있음. 주요 이동통신기업간 고부가가치 서비스 가입자 확보경쟁에 따른 3G 서비스의 개선 및 가입자 확대 등은 3G 부분의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의 지방도시는 여전히 유선 인터넷 접속 환경이 열악하여 3G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통신 부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3G 서비스 시장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은 주요 도시에서도 이동통신기업들의 3G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으로 부가서비스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한 3G 서비스 사용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3G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2010년 10월 폴란드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전자통신청(Urząd Komunikacji Elektronicznej: UKE)은 주요 이동통신기업에 대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이던 휴대폰 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s: MTR) 인하 정책⁷⁾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3G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발표함.
 - 주요 이동통신기업들이 동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폴란드 3G 네트워크 서비스지역이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동통신기업들의 4G 서비스 경쟁적인 도입 전망

- 폴란드 이동통신기업들은 3G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LTE⁸⁾ 기술을 활용한 4G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 LTE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

7) 폴란드 전자통신청은 2007년 4월, 폴란드 이동통신 기업들의 휴대폰 접속료(MTR) 수준을 유럽연합 국가 중 휴대폰 접속료가 가장 낮은 세 국가(스웨덴, 핀란드 및 사이프러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시함.

8) LTE(Long Term Evolution): 4G 이동통신 기술로 구분되며, 데이터 전송 최대 속도는 173Mbps임.

- 2010년 9월 소규모 이동통신기업인 센터넷와 에어로2는 1800MHz 주파수를 활용한 LTE 네트워크를 개시하였으며, 폴콤텔도 LTE 기술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피티케이 센터텔과 피4는 LTE 주파수 경매참여를 위한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임.
- 센터넷 및 에어로2 등의 4G 이동통신 부문 신규기업 진출로 향후 폴란드 이동통신산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4G 네트워크 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통신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4G 이동통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는 모바일 TV, 음반 다운로드,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